

코로나19 여파 전통시장 피해 최소화

전북중기청, 감염병 피해에로 상담센터 운영 피해기업 지원협의회 매주 개최 경영안정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사태에 중진공·소진공 등 산하기관 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자금·수출 등 지원분야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접수하는 '코로나19 피해에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8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협의회'를 매주 개최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도내 코로나19 피해에로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2.26기준), 중소기업 상담건수는 총28건으로 원자재수급 애로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공급 애로 및 생산중단이 각 5건 등의 순이었다. 소상공인 상담건수는 총108건으로 매출감소가 104건을 이루었으며, 이것은 전북의 소상공인 비중(95.2%)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특징으로 그 피해 또한 막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6개 정책자금 지원기

관에 총1,637억원(4,014건)이 신청돼 51.2억원(83건)을 지원(2.26기준)했다.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북신보에 전북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등 인원 4명을 파견했으며, 중진공은 애플플러스 맨 제도 운영을 통해 상담 및 자금접수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기존 25일→개선 7일)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북중기청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북상인연합회(회장 하현수) 및 전북중소기업 지원기관·협단체(29곳) 등과 함께 대대적인 민관합동 '전통시장 활력 찾기 캠페인'(장바구니·홍보물 배포, 장보기 등)을 본격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중기청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전북상인연합회(회장 하현수) 및 전북중소기업 지원기관·협단체(29곳) 등과 함께 대대적인 민관합동 '전통시장 활력 찾기 캠페인'(장바구니·홍보물 배포, 장보기 등)을 본격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불황 속

멧돼지 포획 트랩에 막대 활용 감응장치 설치하면 '효율적'

농진청, 농경지 피해 예방 위해 트랩 이용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멧돼지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컷 성체 멧돼지와 몸집이 작은 새끼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트랩 이용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18년 개발한 '상자식 멧돼지 트랩'은 멧돼지가 자주 오가는 곳에 먹이를 뿌려두고 돼지로 하여금 먹이에 익숙해지게 만든 후 설치·포획하는 장치다. 그러나 주로 단독 생활을 하는 수컷 성체 멧돼지의 약 30% 정도는 트랩을 꺼려 먹이 먹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포획하기가 어려웠다.

봄철에 자주 출몰하는 10kg 미만 새끼 멧돼지도 트랩 문을 미는 목의 힘이 약해 먹이 유인을 통한 포획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은 기존 상자식 트랩에 농가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감응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감응 장치는 길이 35cm가량의 나무 막대 2개를 30cm간격으로 벌려 지지대를 만든 뒤, 지지대 사이를 노끈으로 연결해 H자형 되도록 만든다. 이 H자형 감응 막대를 트랩 유입구 들문에 다시 노끈으로 연결해 두면 완성된다. 멧돼지가 먹이를 먹으며 H자형 감응 막대를 건드리면 트랩 문이 자동으로 내려와서 포획률을 높일 수 있다.

이 장치를 실제 농가에 적용한 결과, 광주광역시에서 수컷 성체 멧돼지 1마리와 새끼 1마리, 전남 여수시에서 새끼 6마리, 화순군 농가에서 수컷 성체 멧돼지 3마리와 새끼 2마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트랩을 이용한 포획과 총기 수렵 활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포획 트랩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 포획을 피한 멧돼지들이 안전장소로 이동하며 먹이 유인장소로 다시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기 포획을 하는 동안에는 트랩 활용은 중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렵 기간이 끝나는 3월 이후 본격적으로 트랩 포획을 위한 먹이 유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강삼석 배연구소장은 "먹이는 잘 먹지만 트랩 안으로 유입되지 않는 수컷 성체 멧돼지나 새끼 멧돼지를 포획할 때는 H자형 감응 장치를 활용하길 권한다"라며 "포획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렵인과 트랩 이용 농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트랩에 감응장치를 설치한 모습.

'백년소공인 선정 축하합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27일 오후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전북 지역 7곳 중창군의 '할적원' (사진 왼쪽)과 '순창장본가식품'에서 현관식을 개최했다. 할적원은 음식숙주로 소문난 어머니의 고추장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4년간 경영하고 있으며, 장맛 유지를 위해 원재료인 고추와 콩을 계약재배를 통해 꾸준한 공급과 신뢰로 안정적인 가격과 맛을 유지하고 있다. 순창장본가식품은 3대째 이어가며 전통을 지키면서 장맛을 다양화하기 위해 흑미맛간장, 김장아찌, 즉석 분말 고추장 제조방법 등을 개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백년소공인 선정 축하합니다

퇴비부숙 촉진제 출시 중기 10곳 중 7곳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그린마스크'

(농협사료 대표이사 안병우)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냄새 없는 축산업 구현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퇴비부숙 촉진제 '그린마스크'를 신제품으로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제품 그린마스크는 기존 약취 저감제로 축산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안나오 균주를 베이스로 한 제품으로 가축 섭취, 분말 살포가 가능하며, 포도당과 설탕을 부형제로 사용해 물에도 녹는 수용성 제품이다. 물에 녹기 때문에 퇴비장 살포가 편리하며, 살포시 분포(유기성 자원)를 발효시켜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킴으로써 부숙을 빠르게 완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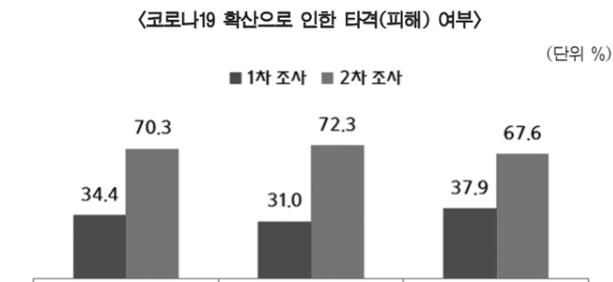
특히, 그린마스크는 바실러스 폴리퍼멘타쿠스와 리체니포미스 등 내생포자균을 사용함으로써 열에 강한 호기성 유익균의 증식활동으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성분을 발생을 억제하고, 퇴비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축사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군산바이오 공장에서 자체 실시한 우분 부숙도 실험결과, 자연 상태에서 부숙 완료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그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14일에서 30일 사이에 부숙이 완료돼 부숙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린마스크는 농협사료 사료기술지원센터,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서울대학교 공동 연구 효과를 보였으며, 약취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해 "갈수록 힘들어지는 축산업 여건 속에서 신제품 그린마스크가 농가들의 퇴비 부숙 의무화와 관련된 걱정과 근심을 해소시켜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중앙회, 정부 지원책으로 '피해기업 지원 확대'로 꼽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긴급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 관련 중소기업의 70.3%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차 조사(지난 4~5일) 때의 경영상 타격(34.4%)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수출입기업 72.3%(수출기업 66.7%, 수입기업 78.2%)의 기업이 경영상 피해를 입었으며, 국내 서비스업체 또한 67.6%의 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책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및 지원 확대(62.0%)를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고,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47.3%) ▲한시적인 관세·국세 등 세금납부 유예방안 마련(45.7%) 등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수출입기업의 51.6%는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납품차질을 겪었으며, 중국 방문기회 축소로 영업활동 차질을 겪은 업체도 40.1%에 달했다. 국내 서비스업체들은 66.5%의 기업들이 내방객 감소, 경기위축으로 매출축소를 겪었



으며, 감염 의심직인 휴무 실시로 인력난 발생을 겪은 업체도 7.6%에 달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건물주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와 관련해, 관련 기업의 50.0%는 이러한 움직임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국내 코로나19의 급속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이 증폭돼 소상공인은 물론 수출입 기업까지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안전은 물론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중소기업계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단체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대구·경북, 부산 등 영남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제균타슈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JB 햇살론17, 비대면 취급액 200억원 돌파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서민금융상품인 JB 햇살론17의 비대면 취급액이 200억원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JB 햇살론17은 자신용자도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금리 대안자금 대출이다. 이 상품은 전북은행 모바일 홈페이지(<https://m.jbbank.co.kr>)에서 앱 설치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 그 성장세가 더욱 뚜렷하다.

전북은행 JB 햇살론17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대출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 고객이 대상이다. 전북은행에 따르면 JB 햇살론17 실행고액 중 대부분이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기존 은행대출 문턱을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은 생계로 바쁘신 분들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은행이 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JB 햇살론17은 전북은행 모바일 홈페이지(<https://m.jbbank.co.kr>)로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 11.3%

국민연금, 기금적립금 전년보다 100조여원 증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기금운용본부는 2019년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운용수익금 증가 등에 힘입어 직전연도 대비 97조 9,000억원 증가한 736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연간 운용수익률은 11.3%(잠정)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난 한 해 얻은 기금운용 수익금은 73조4,000억원(잠정)으로, 이는 해운대 거두어들인 보험료 수입의 1.5배 수준이며, 이에 따른 누적 수익금은 367조5,000억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절반에 해당한다.

2019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11.3%에 이르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및 일본 수출규제 등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가 기준금리 인하 및 경기부양 노력을 진행하고 각종 경제정책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금융부문의 운용 수익률은 11.33%이며, 각 자산군은 국내주식이 12.58%, 해외주식이 30.63%, 국내채권이 3.61%, 해외채권이 11.85%, 대체투자 자산이 9.6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주식은 연도말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합의 타결 소식이 고무된 글로벌 증시 상승세 및 환율의 영향을 받아 3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국내주식 역시 반도체산업 등 수출기업의 실적회복 기대로 증시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의 두 자리 수익률 달성을 견인했다. 채권은 국내의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정책 실행에 따른 금리 하향세로 채권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국민연금의 평가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대체투자는 이자 및 배당 수익과 함께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평가이익의 영향을 받아 9%가 넘는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최종 성과평가

는 위원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경 기금운용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연금기금은 채권 비중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저수익 자산편중 우려를 불식시키게 되었다. 기금운용본부는 설립 이후 장기적 성과 제고 및 위험 관리를 위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년 간 채권투자 비중은 29.5%p 줄어든다고 주식 및 대체투자는 각각 22.8%p, 7.0%p 늘어났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제도시행(88년) 이후부터 연평균 누적 5.86%, 최근 5년간 5.45%, 최근 3년간 5.8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2024년에 1,000조원, 2041년에는 1,700조원에 이르고 향후 10년은 유동성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플랫타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시장에서의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기회가 풍부한 해외투자를 보다 활성화해 기금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우수한 투자 전문인력 확보 및 인프라 개선 등 기금운용본부의 역량 강화를 바라는 바 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미리 마련된 업무 연속성 계획(BCP)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전주) 및 서울(2곳)과 대전 등 4곳의 사무실에서 분산근무를 실시하고, 외부인의 기금운용본부 방문을 자제하는 대신 화상회의 등 온라인 통신망을 활용한 대외기관 소통 체계를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외 출장자 검진 의무화, 기금관 내 카페 잠점 폐쇄, 외부인의 건물 출입 통제 등 코로나19 위험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